여수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찾는다

'2022 국제 섬 포럼 in Yeosu'
20~21일 여수히든베이호텔
교통·경제·복지 등 전문가 논의

여수에서 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수시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여수히든베이호텔에서 '2022 국제 섬 포럼 in Yeosu'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섬 주민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미래 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행사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병행해 진행되며, 영국과 캐나다, 일본, 한국 등 4개 국가의 교통과 지역경제, 복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정책'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세션별 주제인 ▲지속가능한 섬의 교통 ▲지속가능한 섬의 경제 ▲지속가능한 섬의 의료 및 복지에 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 섬 포럼 in Yeosu'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포럼을 개최해 국제적 위상의 섬 학술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 진모지구와 여수시 도서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 세계 30개국 200만 명이 참여해 섬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는 국제행사로 전세계의 이목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다양한 걷기 행사로 군민 건강 챙기기

11월 18일까지 화엄사 치유탐방로
20일 공설운동장 군민건강 걷기

구례군이 다양한 걷기행사로 군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구례군은 지난 17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들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 등 다양한 걷기 행사와 관련 현안업무를 꼼꼼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엄사 치유탐방로 걷기 챌린지'와 '2022 군민건강 걷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구례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서 외부활동이 많아지고 있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워크온' 모바일앱을 활용한 화엄사 치유탐방로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운영기간 중 구례군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워크온' 앱을 사용해 코스를 확인한 후 화엄계곡 제2탐방로를 걸으면 GPS가 위치를 파악해 자동으로 참가가 완료된다.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산악용 텀블러를 지급하는 작은 이벤트도 같이 진행 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구례 원추리꽃길에서 열린 군민 걷기 행사. 〈구례군 제공〉

또 구례군 체육회 주관으로 2022 군민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광의대교를 거쳐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의 거리를 참여 인원이 함께 걸을 예정이다.

군은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걷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걷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사추진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친환경 자색무 계약재배 시험포 운영

광명·교촌 K&P 등 참석 간담회

곡성군 친환경 자색무 재배단지 계약재배 조성을 위한 시험포 운영에 나섰다.

곡성군은 최근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서 '친환경 자색무 재배단지 계약재배 조성을 위한 시험포 운영'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 자색무 시험포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 최종 협의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곡성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광명(유) 조상현 회장, 교촌그룹계열사인 교촌 K&P 김승환 대표, 한국연구재단,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측에서 참석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곡성군은 자색무 시험포 운영을 지원하고, 시험포에 사용되는 미생물 제제를 농가에 보급하는 일에 협조하기로 했다. 광명(유)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의 부지 일부를 활용해 자색무를 시험 재배한 후 지역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체결해 교촌그룹에 상시 납품하기로 했다. 교촌그룹은 지속적인 무 생산이 가능한 경우 전량 수매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자체 개발한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자색무의 생장을 촉진함으로써 단위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자색무 계약재배 시험포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교촌그룹에 연중 납품을 할 수 있다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유) 측은 이번 시범운영 후 2023년부터 10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50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기자 노트

민선8기 군민통합 초심 잃지 않길

주각중 동부취재본부 국장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다행히 고흥군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선거 후유증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 같다.

지금의 분위기는 지난 민선 7기 시작, 무소속-민주평화당의 '적폐정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임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 부각했던 서슬이 퍼렇던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민선 8기, 다시 민주당 출신의 군수가 당선됐다.

취임 초 기자간담회에서 공영민 군수는 전임군수의 흔적 지우기 등은 하지 않겠다면서 잘 한 것은 잘 한 것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면서 군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렇다. 전임자의 사업을 모두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공 군수는 최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 없는 고흥을 만들어 군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고흥의 변화발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어젠다보다 군민통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 군수는 이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해 온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최초의 군수가 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공 군수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지 모든 유권자가 똑같은 고흥군민임을 명심하고 군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또 군수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민원인이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원칙과 소신으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만들어 갈 때 군민들은 자연스럽게 군을 신뢰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고흥의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영민 군수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모두를 섬기며, 군민만을 위한 행정으로 분열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군민통합시대를 열어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명 기반 구축의 토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gjju@kwangju.co.kr

순천시-산림아카데미 정원박람회 성공 협약

순천시가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한국산림아카데미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정원문화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등 현장학습장 활용지원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와 협력 ▲산림 및 정원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를 통해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 CEO역량 개발이라는 비전으로 2010년 설립한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은 국내 최초로 민간주도의 산림 및 정원 CEO과정을 운영하며 전문가를 양성해 산림·정원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산림과 정원의 가치가 문화·경제·치유 등 다방면에서 집중 받고 있다"며 "산림과 정원에 대해 높아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원전문가 육성과 정원산업 발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노관규(왼쪽) 순천시장과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

보성茶 프랑스 식품박람회 참가 유럽시장 진출

보성군이 보성 차(茶)의 유럽시장 진출에 나섰다.

보성군은 김철우 군수를 포함, 보성군 차생산자조합과 보향다원 등은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프랑스식품박람회를 방문한다.

방문단은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2022 파리식품박람회(119개국 7200개 전시관)에 참여해 보성차 홍보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보성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성 차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중남미 등에 집중된 보성 차 수출루트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단은 또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한류열풍과 연계한 한국차문화 홍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보성군 농수산물 유럽시장 수출 지원을 요청하고, 남프랑스 해양관광 분야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